동서발전-코이카, 중소벤처 육성 등 맞손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마루 180에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과 '중소벤처 육성과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업무협조약정'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코이카에서 추진 중인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을 통해 해외청정개발체제(CDM) 적용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국내 중소벤처를 육성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왼쪽)과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동서발전

서울사이버대, 201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이은주)는 지난 17일 서울 성북구 소재 본교 캠퍼스에서 '201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갖고 졸업생 1014명을 배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졸업식에서는 만 69세의 최고령 김정희(특수심리치료학과) 씨와 만 20세 최연소 윤수영(문화예수경영학과) 씨를 비롯 학사 994명, 석사 70명 등 총 1014명이 학위를 받았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원길 인본주의상'에 라파엘클리닉

가톨릭대학교 선정

22년 간 외국인 노동자 무상 진료

가톨릭대학교(총장 원종철 신부)는 '제7회 이원길 가톨릭 인본주의상' 수상자로 자선의료기관 라파엘클리닉(대표 김창덕)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주노동자 무료 진료소 사회복지법인 라파엘클리닉은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진료 환경에 도움을 주고자 서울대 의과대학 가톨릭학생회를 주축으로 1997년 4월 서울 혜화동 성당에서 첫 진료를 시작했다. 이후 22년 동안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상 진료 활동을 이어왔다.

혜화동 성당 간이 진료소에서 출발한 라파엘클리닉은 진료소를 찾는 환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가톨릭대 신학대학 성신관을 거쳐 동성고등학교 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진료를 이어갔다. 지난 2014년에는 현재 진료소가 자리하고 있는 성북동 라파엘센터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한용수 기자 hys@

스콜 서울 클럽 단체 회원들이 2019년 행사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스콜서울클럽

'창립 50주년' 스콜 서울클럽, 디너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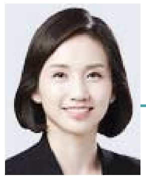
오는 30일 포시즌 호텔서 개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관광 기관인 국제 스콜 서울 클럽(회장 라두 체르니아 매리어트 서울 총지배인)이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오는 8월 30일 포시즌 호텔에서 대규모 갈라 디너 행사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세계 최대 민간 관광 기관이자 가장 오래된 단체인 국제 스콜은 지난 1934년 파리에서 처음 설립되었다. 현재 유럽, 북미, 남미,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 90여 개 국가에 400개 클럽이 있으며 1만 5천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이번 50주년 행사에는 서울클럽 회원과 인천 클럽 회원 모두가 참석하며, 정부 관광 기관, 항공사, 언론인은 물론 해외에 있는 다른 스콜 클럽 관계자들까지 서울을 방문해 직접 축하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세계 스콜 클럽을 대표하는 회장과 전임 회장들, 자매 클럽 회장들이 보내온 다양한 화상 축하 인사도 소개된다. /이민희 기자 lmh@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따른 취업규칙 개정



김 보 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 및 대응조치를 하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7. 16.부터 시행되고 있다.

처벌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얼마나 제도적 실효성이 있겠냐는 일부 우려와는 달리, 법 시행과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진정 사례들이 보도되고, 기업들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문화에 크고 작은 변화의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지방노동관서별로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사안을 판단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 각 기업에서는 가장 먼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 취업규칙에는 구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원칙,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고충상담,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제재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규정하면 될 것이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호). 그러나 미신고 확인 즉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감독관이 25일 이내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그 시정기간 내 미시정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는 반드시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조치 외에도 근무장소의 변경 등 다른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반드시 추가할 필요는 없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통상적으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조항(예: 법령 위반 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등)으로도 포섭이 가능할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정책과 사내해결절차 등에 관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이는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 없이 의견청취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취업규칙 개정만을 점검하는 근로감독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기, 수시, 특별 근로감독 과정에서 취업규칙 심사를 통해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율에 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취업규칙에 해당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나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KT, 가나에 감염병 확산 방지 플랫폼 서비스

스마트폰 앱 'GEPP 가나' 출시행사
감염병 정보 제공 등 감시역량 강화

KT가 아프리카 가나에서도 글로벌 감염병 확산 방지 플랫폼(GEPP) 서비스를 시작한다.

KT는 지난 14일(현지시간) 가나에서 'GEPP 가나' 출시행사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KT는 가나 보건청에 감염병 감시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GEPP 시스템 구축 협약을 체결한 후 ICT를 활용해 보건정보시스템을 선진화한 덕분이다.

KT와 가나보건청은 스마트폰 앱 'GEPP 가나'를 통해 국민들에 감염병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 위험 지역 방문시 위험 알림과 근처 병원 검색 기능도 있다. 디지털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연말까지 추가할 예정이다.

KT와 가나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GEPP 론칭을 축하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동면 KT 미래플랫폼사업부문장, 바두 사코디에 가나 보건청 공중보건국장, 이베네저 오다메 보건부 정책기획국장, 김성수 주가나 한국대사관 대사, 안소니 나시아 아사레 가나 보건청장. /KT

KT 미래플랫폼사업부문장 이동면 사장은 "체계화된 보건 빅데이터 등 ICT 기술을 통해 아프리카 가나 국민들이 동등한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KT는 다양한 기술력과 역량을 기반으로 국가 장벽을 초월해서 인류 공영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국장급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부단장 정용욱 △청년정책추진단 부단장 김민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파견 이성춘

◇ 과장급 △ 기획총괄정책관실 기획총괄과장 서영석 △조세심판원 조사관 은희훈

◆산업통상자원부 ◇ 전보 △통상정책총괄과장 최진혁 △ 철강세라믹과장 김현철

◆환경부 ◇ 과장급 전보 △자연보전정책관실 자연생태정책과장 유명수

◆충남 보령시 ◇ 5급 승진 △홍보미디어실장 이지성 △회계과장 김정수 △수산과장 김왕주 △청라면장 맹진영 △남포면장 강동구 △대천1동장 허성원

부음

▲ 조승기씨 별세, 조동범·조명순·조동영(삼성의료원 복지관 운영총괄)·조현순·조동율(제일기획 the SOUTH 본부장)·조동현(트로바코리아 대표이사)씨 부친상, 최창식(전 ETRI 사업개발실장)·이재완(희림건축 전무)씨 장인상 = 17일 오전 4시30분, 영주시 명품장례문화원 특1호실, 발인 20일 오전 8시. 054-634-1444.

▲ 김순여씨 별세, 이영돈(전 채널A 전무)씨 장인상 = 17일, 여의도성모장례식장 1호실, 발인 20일 오전, 장지 국립 대전현충원. 02-3779-1526.

▲전인택 씨 별세, 전종률(G1강원민방 영동본부장) · 주희 · 영준 씨 부친상, 변영혜(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장 · 춘천효자복지관장) 씨 시부상, 김성호(중앙일보 마케팅팀) 씨 장인상 = 17일 낮 12시10분, 강원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0일 오전 6시30분, 010-5368-8701.

▲ 최순연씨 별세, 조영화·조희야·조용종·조덕우(예탁결제원 고객행복센터 팀장)씨 모친상 = 17일 오후 11시3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19일 오전 9시, 장지 벽제 승화원. 02-2227-7590.

▲ 임호욱(전 부산일보 논설위원·전 경남매일 편집국장)씨 별세, 임갑일·임세일씨 부친상, 전양희씨 시부상 = 16일 오후 2시44분, 부산 시민장례식장 501호실, 발인 19일 오전 9시30분. 051-636-4444.